

나주시 다도면,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집중 점검

7월 28일부터 경로당 순회



나주시 다도면, 경로당 폭염 대응 점검 사진 /나주시 제공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나주시의 현장행정이 강화되고 있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나주시 다도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무더위쉼터를 찾아 냉방시설을 점검하고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유설희 다도면장은 지난 7월 28일부터 관내 27개 경로당(무더위쉼터)을 순회하며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폭염 장기화에 따른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무더위쉼터를 보

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면장은 각 경로당을 방문해 에어컨 등 냉방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와 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냉방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적정 실내온도 유지 방법과 사용법도 안내했다.

또한 한낮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 야외활동과 농작업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폭염특보 발효 시 행동요령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불편 사항을 함께 살피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부동산마을 선정

화순군, 여름 피서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담양군(군수 박종원)은 창평면 부동산마을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마을은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보완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선정된 조건부 선정으로, 보완 절차를 마치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기금과 주민 복지 등에 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지원을 지원한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이 지난 5일 본격적인 무더위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을 찾는 피서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화순군은 산림사범경찰관과 숲사람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 지역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계곡, 산림휴양지, 임도 및 산림 인접지역 등이며 불법상행위 및 시설물 설치, 산림오염행위, 산림 인접 지역 내 취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남호경 기자

“사고 예방 최우선” 영광군, 중증장애인 안전망 가동

현장 중심 긴급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 냉방기 긴급 지원 등 신속 조치



영광군청 전경 사진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가정방문 과정에서 냉방기 고장으로 폭염에 노출된 중증장애인을 신속히 발견해 긴급 지원을 실

시하는 등 현장 대응이 실제 안전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며 호평을 받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폭염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위

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은 폭염특보 발령 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전화와 방문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대응은 실제 안전사고 예방으로 이어졌다. 지난 4일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은 가정방문 상담 과정에서 냉방기가 고장 나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60대 중증장애인 가구를 발견하고 즉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이어 영광읍사무소 방문복지팀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를 활용해 새로운 냉방기를 신속히 설치했으며, 온열질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광군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기 기자

‘평생학습도시’ 장성군, 평생학습센터 문 ‘활짝’

6일 장성미식산업진흥원 등 3곳 추가…총 14곳

‘평생학습도시’ 장성군이 6일 장성미식산업진흥원, 청년센터 아우름,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3곳을 평생학습센터로 새롭게 지정했다.

평생학습센터는 주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평생학습 거점이다. 지난해, 장성군은 11개 읍면마다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해 마을 주민의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장성군은 총 14곳의 평생학습센터를 보유하게 됐다.

센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있다.

△지역 특성화 교육 △직업능력 및 역량개발 교육 △인문·문화·예술 프로그램 △노인·청년·청소년 맞춤형교육 등 총 485곳에서 674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앞선 3월, 장성군은 ‘문(文)불어 장성, 배움의 문(門)이 되는 도시’를 주제로 총 19개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인정받으며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지정됐다. 평생학습센터가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 학습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군민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힘을 계획한다. /김재섭 기자



장성군 평생학습센터 신규 지정 기념촬영 사진 /장성군 제공

터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평생 학습의 기회를 누린다’는 평생학습 도시의 취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한 축이다. 장성군은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배움의 사각지대가 없는 ‘15분 학습권’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기관 연계 등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평생학

습센터가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 학습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군민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힘을 계획한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